



제목	Christians and Jews in the Ottoman Arab World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01. 8. 6.
저자	Bruce Masters
출판도시	Cambridge
페이지수	222
ISBN 또는 ISSN	978-0521803335

내용 요약

이 책은 오스만제국의 아랍지역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역사를 고찰하여, 400년 이상 비무슬림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연구한 책이다. 16세기 당시의 사회 공동체는 종교적 정체성을 기준으로 구축되었으며, 비무슬림은 무슬림 율법에 따라 확립된 위계구조 속에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서구의 영향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오스만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기존 위계구조에 대한 도전으로 무슬림과 기독교인 간에 갈등이 분출되었다. 이 책은 오스만제국의 아랍지역에 살았던 다양한 종파와 규모의 기독교 공동체와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는 지방의 수기기록, 법정재판 기록, 오스만중앙정부의 보관기록, 유럽의 기록 등 방대한 자료에 기초하여 각 공동체가 처해있던 지역적 상황, 제국의 상황, 세계사적 상황 속에서 공동체를 다룬다. 이 책에서 저자는 16세기와 17세기의 다양한 종교 공동체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오스만제국과 맺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저자에 의하면, 18세기에는 종교적 소수 공동체에 대한 유럽의 관심과 개입이 증가했으며, 19세기에는 소위 '밀레트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 밀레트 전쟁이란, 오스만제국으로부터 지도자 지위와 인정을 받기 위한 종교 그룹들 간의 정치적 투쟁을 가리킨다. 이 책은 종교적 소수 공동체를 전형적으로 다루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범주의 개념이 바뀐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입증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다.